

2022 공인노무사 합격 후기

합격수기 제목:

제31회 공인노무사 합격 후기 feat. 비법 비경영 30대 퇴사러

수험기간:

제31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떨어질 줄 알고 다시 토익도 봤지만 새로 공부를 시작할 엄두가 안 나 막연하게 시간만 보내다가 합격자 발표날 확인했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합격이었습니다. 분명 열심히 했지만 그럼에도 '운'이 조금은 따른다는 시험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저를 통해 깨달았네요. 법도 경영도 모르던 30대가 수험기간 2년을 거치고 합격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저는 비법 비경영으로 아예 무관한 전공으로 대학에서 공부했으며, 직장을 다닐 때에도 노무사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베이스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활은 회사를 퇴사하고 시작하였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1차를 본 경우가 아니라 공부의 시작 자체를 퇴사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동차합격을 꿈꾸며 의지를 다졌으나, 동차에는 아쉽게도 아니라 큰 점수차이로 떨어졌습니다. 동차 때 2차 점수는 평균 57점대로 기억합니다. 올 해는 유예로 시험을 치렀으며 평균 60.57의 그리 높은 점수는 아니나 제게는 너무나 감사한 점수로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과목별 공부법(수강 강의 및 교수님 후기, 시간 관리 방법 등):

행정쟁송법- 정선균 박사님 인사노무관리론, 경영조직론 - 최중락 강사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저는 동차와 유예 시절 모두 강사를 변경하지 않고 한 분의 강의를 계속 수강하였습니다. 정선균 박사님, 최중락 강사님의 강의 퀄리티와 전문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차 때 불합격의 요인이라면 강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히 다 소화하지 못한 제 탓이라고 생각했기에 올 해 유예생활을 보내면서 강사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선택은 제가 합격하는데 아주 유효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강사님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수업을 이해하고 책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고 그런 시간들을 모아 암기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점이 합격률을 높일 수 있었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기 때까지도 암기를 통한 아웃풋 현출이 잘 안 되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해결책은 더 많은 시간투자와

지속적인 현출이라고 생각하여 3기 막판까지 인사관리와 경영조직 과목에 하루 10시간 가까이 투자하는 모험아닌 모험을 하였습니다. 올 해는 2차 환급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였으므로 모르는 부분은 빠르게 다시 강의를 듣는 등 온라인 강의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저는 시간관리를 제대로 했던 수험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고생을 많이 한 케이스이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합격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자라도 더 보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공부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사이트, 서비스, 콘텐츠 활용 팁:

저는 동차 시절 노단기 종합반을 수강하면서 실강으로 모든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종합반 학생에게는 사물함도 주어지고, 무엇보다 치열한 수강신청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장 큰 장점이 존재했기에 종합반을 선택하여 수강하였습니다. 유예 시절에는 통학거리가 멀어 체력적인 부담이 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이때 제가 신청한 것은 '2차 환급 프리패스'였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시 수강료를 환급해주는 수강패키지인데 등록을 하면서 '올해 꼭 합격해서 무조건 환급 받는다.' 라고 다짐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노단기에만 존재하는 수강패키지로 알고 있는데, 돌이켜보면 너무 좋은 제도(?) 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으면서도 합격하면 이를 환급해준다니요...! 실제로 저는 공부를 하면서 합격해서 환급받으면 환급받은 돈이 마치 복권 당첨과 같은 꿈돈(?)이 생긴 기분이 들 것 같아서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곤 했습니다. 이런 제도도 본인에게 맞는 분들은 잘 활용하면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 교수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정선균 박사님, 최중락 강사님 두 분 다 강의력도 너무 좋으시고 무엇보다 전문성에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뛰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믿고 갈 수 있었습니다. 강사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건 수험생 입장에서는 엄청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두려움이나 괜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안정감을 토대로 공부에만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강사님에 대한 믿음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두 분은 제게 너무 감사한 분들이고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님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주저말고 선택하세요:) 노무사 합격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더 넓은 세상에서 경쟁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 두렵기도 하지만 설레는 마음이 더 큼니다. 수험 생활이 막막하고 힘들

지만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신을 믿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응원합니다.